

|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에 참가하여
(감상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게재한 것입니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실은 이번 환경 심포지움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나라가 전부 다르니, 말도 통하지 않고, 각국을 둘러싼 정세도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 심포지움에 참가하자, 나의 생각은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나라의 이해관계를 떠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심포지움 첫째 날.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하루밤을 보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류회가 첫째날에 있었다라면 더욱 많은 시간을 상호이해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심포지움 둘째 날. 환경문제에 대해 각국의 발표자들이 나와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다. 서로의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둘째날 오후에 교류회가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타국 친구들과 소중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교류회가 끝나고 일본 친구들의 초대로 그들의 방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포지움 셋째 날.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제 프리젠테이션 때 배웠던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실습해 봤다. 표착물조사를 하었는데 바다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 바다에서 흘러 들어온 쓰레기들은 지구촌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줄여 나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태도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수질조사에 대해 배웠는데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저녁에는 만찬회가 있었는데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흐뭇했다.

심포지움 마지막날. 헤어짐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타국의 친구들을 보내야 했다. 만남이 행복하면 헤어짐은 더욱 아쉽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떠나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나는 이번 환경 심포지움에 참가한 후 많은 것을 느꼈다. 나라와 언어와 피부 색은 다르지만, 모두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한 안도감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얻은 큰 수확물이었다. 나의 바램은 앞으로 이러한 국제심포지움과 교류가 계속되어, 환경보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더욱 의미있고 규모있는 심포지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환경심포지움은 내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 될 것 이

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이번 동북아시아 환경심포지움은 동북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모여 환경오염에 대해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임한 환경보전활동을 발표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자료와 환경가계부를 만드는 등 여러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임해수련원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 다음날이 발표날이 었다. 우리는 준비한 것을 열심히 발표했다.

나는 우리조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는 내용에 맞춰 넘기는 역할을 했다. 발표가 끝나고 타국에서 온 친구들이 준비한 것을 보았다. 타국 친구들은 정말 잘한 것 같았다. 우리의 발표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수질보전방법을 알리는 것 정도였지만, 타국에서 온 친구들의 발표는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달 동안 직접 활동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타국에서는 이 환경심포지움을 위해서 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것 같았다.

발표가 끝난 후, 오후에는 탁도, COD, pH 등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COD와 pH 같은 경우에는 팩테스트라는 방법을 써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이 끝나고 대천해수욕장으로 나가서 해변의 표착물을 조사했다. 해변의 표착물은 해변에 놀러온 사람들이 버린 것도 있지만 이웃나라에서 바다를 통해 떠내려 온 것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바다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변의 표착물 즉 쓰레기를 줍는 데 생각보다 그 양이 적었다.

알고 보니 아침에 미리 주웠다고 한다. 아침에 주운 쓰레기를 보니 매우 많았다.

일본에서는 이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4개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표착물조사에서 갯벌탐사도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갯벌탐사는 하지 않았다.

저녁식사 후 교류활동으로 레크레이션을 했다. 타국의 친구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댄스, 볼링, 색판뒤집기, 노래 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했다.

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친구들끼리 많이 가까워졌다. 밤에는 일본친구들과 우리 한국 친구들이 모두 어울려 대화도 나누고 베풀어주기도 하면서 더욱 친해졌다.

다음날 아침에는 물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쓰레기매립장,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등을 시찰했다. 쓰레기매립장은 나중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냉풍욕장은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했다. 석탄박물관의 엘리베이터도 재미있었다. 이날 저녁은 한화콘도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저녁식사 전에는 각국에서 소감문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임해수련원에서의 마지막밤이 끝나고, 슬슬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떠나는 타국 친구들을 배웅하고 임해수련원을 떠났다.

이것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환경심포지움이 모두 끝난 것이다. 환경의 소중함을 일

깨워주고 동북아시아 각국과 교류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동북아시아 4개국 청소년 환경심포지엄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참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다. 발표할 프레젠테이션과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환경에 대하여, 수질 오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파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첫 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마음을 추스르고 충남 임해 수련원에 갔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하고나니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계속 방에만 있으려니 참으로 갑갑하고 심심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먹고 그랬는데 그것이라도 하니 심심한 것이라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못 봤던 아이들이 보였다. 생각을 좀 해보니 우리와 같이 참가할 외국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였다. 본 일정을 시작하자 우리는 개회사를 듣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모두 마치고 나니 정말 진땀이 났다.

점심을 먹고나서 물의 탁도를 조사하는 실험이 있었다. 학교에서 해 보지 않았던 실험을 하니 정말 재미있었고 신기하기도 했다. 탁도를 조사하고 또 COD 수치와 pH 수치를 조사하는데 간편하게 팩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간편하고 쉬웠다.

해수욕장에 나가서 표착물 조사를 하는데 정말 더웠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교류회가 있었다.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이 교류회가 첫날에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류회를 통하여 서로가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외국 아이들하고도 말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 날 밤에는 한국 대 파라과이 올림픽 축구가 있어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의 형들이 베게 싸움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신나게 베게 싸움을 하고 정말 곤히 잠든 것 같았다.

셋째 날, 우리는 점심을 먹기 전까지 계속 강의를 들었는데 저녁에 신나게 놀아서 그 여파가 그 때까지도 있었다. 지겹기도 하고 더 나가서 졸리기도 하였다. 얼마나 졸린지 참는 것도 고역이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석탄 박물관과 냉풍욕장등을 갔었다. 보령시의 주요 관광지를 다 돌고 나니 내가 안 가본 관광지도 있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아쉬웠다. 관람을 다 끝내고 한화 콘도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먹은 맛있는 것들이 정말 좋았다. 다 먹고 나서 수련원으로 돌아와서 곤히 잤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아무튼 정말 좋은 경험들이었다. 비록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둔다. 좀 아쉬운 점을 쓴다면 강의보다는 직

접 할 수 있는 실험을 더 많이 했다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교류회가 첫 날에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 솔직히 첫날과 둘째 날 저녁까지는 정말 서먹서먹했었다. 아무튼 이 기회가 다시 있다면 정말 열심히 이번보다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나는 우연한 기회로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엄이란 쉽게 말하면 4개국의 청소년들이 각국의 환경에 관해 진지하게 토의를 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그렇게 딱딱한 심포지엄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모여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도 구경하면서 서로 친해져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레 소개도 할 수 있었다. 또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2002 한일 월드컵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그다지 굵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행사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좋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바람직한 것 같다. .

나는 환경 심포지엄에 가기 위해 방학 전부터 열심히 환경 가계부도 써가며 환경 심포지엄에 갈 준비를 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심포지엄에 가면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 외국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싶었고 같이 놀고도 싶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가 심포지엄 첫날 친구랑 우연히 1층 휴게실에 신문을 읽으려고 나왔는데 러시아 측 한 통역사 분이 헤이~ 맨! 컴 온~해가며 나를 불렀다.

나는 친구보고 대신 나가라고 했지만 친구가 나의 등을 떠밀었다. 할 수 없이 러시아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걸었다. 나의 미국 본토식 발음은 러시아 쪽에서도 통하였다. 이내 알아듣고는 나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이름하고 나이도 물으며 잠깐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환경 심포지엄에 와서 매일 놀기만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본분을 잊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하루 일정표에 맞게 최선을 다하였다.

여기 와서 가장 재미있던 날은 둘째 날 레크리에이션이 있던 날이었다. 닭싸움, 색갈판 뒤집기, 제기차기, 훌라우프 돌리기, 장기자랑하기 등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4개국의 학생들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인상깊었던 날이 있었다.

셋째 날 만찬회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만찬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오락실에서 다른 외국학생들도 같이 신나게 오락을 했던 것이 즐거웠다. 또 만찬회 때 맛있게 배불리 먹었던 것도 즐거웠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정이 끝나가고 이별의 넷째 날이 다가왔다.

3박4일의 일정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심포지엄에 모인 각국의 학생들과 마지막 아침식사를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떠나

는 모습을 보며 배웅을 하고 우리도 갈 준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정말 꿈 같은 3박4일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 같다.

이번 기회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없어졌으며 또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또한 외국의 다른 학생들도 우리나라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조금 의외였다. 마지막으로 이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지난 8월 20일, 친구들과 떨리는 맘으로 충남 임해수련원에 갔던 게 바로 었그제 같은데 벌써 소감문을 쓰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지난 4일 간의 경험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낯선 사람들과의 동침(?)이라서 그런지 무척 새로웠다. 해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외국인을 보고, 외국인들의 언어를 듣고, 외국인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마냥 신기할 따름이었다.

첫 날인 20일은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서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컴퓨터에 눌러 살던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417호 방을 뒤진 끝에 고스톱 2묶음을 찾아내어 했다. 서로서로 자신들이 본 외국인들을 평가하는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이런 저런 잡다한 것들을 이야기하다보니 어느새 새벽 3시. 내일의 환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그 날 아침 시간은 참으로 의의있는 시간이었다. 전날 제대로 보지도 못한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대면식이었다. 전날 가졌던 환상이 깨져버린 것은 물론이었다. 아침을 먹고난 뒤 개회 인사와 기조 강연을 듣고, 본격적인 환경심포지움 활동에 들어갔다. 각국들의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반면, 우리 한국은 그 대신 어느 한 주제에 대한 자료가 풍부했다.

점심을 먹고난 뒤 수질간이측정법 실습시간. 올해 나간 대회를 통해 과학, 특히 실험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된 나는 나름대로 상상을 하며 6층 세미나실로 들어섰다.

일본인 대학 조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투시도,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 pH(산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강 물과 일반 물에 대한 COD와 pH는 조교수님의 측정값과 들어맞았지만 500배 희석한 이온음료의 경우 pH가 들어맞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본 활동으로 들어가, 공동 야외 환경보전 활동을 하러 대천 해수욕장으로 나갔다.

나를 비롯한 몇몇 애들은 어떤 조에 속해있는지 몰라 우리끼리 조를 만들어서 했는데 많을 줄 알았던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다. 역시 대천해수욕장이구나 생각하려던 찰나, 이 곳에서 쓰레기를 주운 양이라며 보여준 것은, 쓰레기로 꽉 찬 봉투 3개. 약간 실망했다. 수련원으로 돌아와 애들과 잡담을 하며 놀다 저녁을 먹고 교류회가 열리는 6층으로 올라갔다. 이번 심포지움 참가자 중 절반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중심으로 하게 되었는데 재미없을 줄 알았던 전통놀이가 하다보니 꽤 흥미있었다. 다과회가 끝나고 들어갈 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외국 친구들이 웬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흐뭇했다.

새벽 내내 애들과 놀다, 늦게 잠든 나는 8월 22일 아침을 피로와 함께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우리들의 수질 환경’이라는 주제로 일본 조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졸릴 때 러시아어를 틀어서 들으니 러시아어 특유의 강한 억양으로 인해 잠이 달아나버렸다. 그렇게 졸음을 참으며 현재 세계의 수질이 심각한 것을 알게되었다.

점심식사 후 고대하던 3곳 시찰에 들어갔다. 버스를 타고 처음 이동한 곳은 쓰레기 매립장. 환경 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수행하는 곳 또한 첨단 설비로 무장되어야 한다.

보령시가 일을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들어섰는데 담당 직원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머드로 유명한 보령은 역시 유명한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내가 보령 시민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러워졌다.

그 다음은 냉풍욕장. 여름만 되면 보령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버린 냉풍욕장은 옛날 석탄을 캐던 곳에서 나오는 천연 바람을 이용하여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석탄박물관. 우리에게선 지하 400m 를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엘리베이터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이런 곳에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보령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이 우리 외국 친구들과의 마지막 저녁식사인 만큼 한화콘도에서 만찬을 했다.

외국 인사분들, 친구들의 소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번 심포지움의 진정한 의의를 깨닫게 되었다. 환경 심포지움인 만큼 세계의 환경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지만, 외국 친구들과 서로 교류하며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외국인들에 대한 안목도 기르고 우정도 쌓을 수 있었다는 것도 이번 심포지움의 의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만찬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으며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내일 개학식을 대비해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헤어짐의 아쉬움과 함께.

드디어 헤어지는 날.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우리가 같은 곳에서 식사하는 마지막날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아침을 먹고 그리고 환경 심포지움은 끝났다. 겉으로 보기에선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인생에서 두 번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훗날 이 경험을 기억하며 웃는 나를 상상해 본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심포지움”, 처음에는 막 설레었던 단어이다. 동북아시아 4개국의 대표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과 동북아시아 환경보전을 위하여 토론을 하고 조사하며 발표하는 것도 나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선생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나는 3박4일의 긴 여정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정말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다.

우리는 긴 여정의 시작을 쓸쓸함부터 시작하였다. 막상 숙소에 도착하여보니 첫날은 그냥 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은 밤바다 구경을 하거나, 아테네 올림픽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하룻밤이 지나고 우리는 간단한 아침밥과 함께 표착물 조사에 나섰다. 일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한국 바다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고 말 하였다. 일본은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바다가 부럽다고 말했다. 나는 새삼스레 뿌듯하고 기뻐다. 전에 많이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내가 정말 부끄러웠다.

표착물 조사가 끝나고 각국 청소년대표들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다. 나는 맑음이조의 조장으로서 그 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차분히 얘기하였다.

발표행사가 끝나고 기다리던 교류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서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우리 세계 각국 대표들은 의사소통문제로 친분을 형성하는데 힘이 들었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선생님의 주도하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다. 친교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숙소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환경 연설을 들었다. 일본 교수님은 언어의 장애를 뛰어 넘어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그 와중에도 재치있게도 계산문제를 내어 4개국간의 수학 실력을 알아보는 게임도 하셨다. 연설이 끝나고 우리는 보령시에있는 환경과 관련된 명소를 찾아가 보았다.

냉풍욕장, 벼루 만드느곳, 석탄박물관, 쓰레기 매립장 등 우리는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특히 냉풍욕장의 추위와 석탄박물관의 엘리베이터가 인상 깊었다고 일본친구들이 말했다.

보령시 명소를 찾아보는 짝막한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는 저녁 만찬을 먹게 되었다. 한화 콘도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숙소 방에 모여 즐겁게 놀았다.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동북아시아 친구들을 배웅해 주며 숙소를 떠났다.

이번 2004 동북아시아 환경 심포지움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우리나라의 물소비량이라든지, 수질오염의 심각성, 동북아시아 환경의 미래 등 여러 정보를 익히고 배웠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은 것 같다. 화장실 변기에 돌넣기, 쌀뜨물 사용하기, 폐기름

으로 비누만들기 등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 환경을 바꾼다는 말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8월 20일 첫째 날, 대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임해수련원에 갔다. 외국인(일본, 중국, 러시아)을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려, 긴장된 채로 하루 일과가 시작 되었다. 수련원 방에 일단 가서 짐을 풀어 놓고 저녁식사를 먹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이렇게 첫째 날은 허무하지만 재미있게 끝났다.

8월 21일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정리를 하고 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 되었다. 우리는 ‘개회 인사’로 빙 둘러싸인 책상과 의자에 각각 앉았다. 앉아서 귀에 ‘동시 통역기’를 끼웠다. 다른 나라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 한국으로 통역되었다. 영어로 통역할 줄 알았는데, 통역사가 있어서 알아듣기가 참 쉬웠다. 강의는 한국 측에서는 ‘환경국장’님께서 강의를 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환경부 차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다.

또 공주 영상정보대학 학장님의 연설도 듣게 되었다. 강의를 듣고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결심도 했다. 그리고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각 나라의 활동내용 발표가 있었다.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중국->일본->한국->러시아) 순이었다. 일본측의 발표를 보았는데 실험을 실제로 해서 자료를 뽑아낸 결과 그 자체였다. 증거로는 ‘사진’이 있었다. 다른 나라는 ‘사진’은 없었지만 훌륭하였다. 우리 나라는 간략하면서도 속깊은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질 간이 측정법(투시도 법, COD, pH)을 직접 실험 하였다. 이 실험은 일본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강사도 일본측이고 수월하게 잘하는 곳도 일본측이었다. 처음 듣는 것이어서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 점점 해보니 손에 익혀지고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 COD 측정기구와 pH 측정기구를 얻게 되어서 기분도 새로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엔 레크리에이션(교류회)을 열었다. 강사님께서 한국인이셔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게 되었다. 이 때가 외국인들과 친근감이 생기고 서로 잘 알게 되는 계기였다. 외국인 친구들도 재미있게 놀이를 하였다. 2시간 동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모두 즐겁게 참가하였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정도 놀이는 기본이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해 냈지만 외국인들은 약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통역사가 없어도 말이 저절로 통하게 되었다.

8월 22일 셋째 날, 졸린 눈을 떠서 이리저리 학습활동을 하고 오후에 버스를 타고 석탄박물관, 냉풍욕장에 가서 더위를 식혔다. 더위를 식히니 저절로 졸음이 오기도 하였다. 셋째 날은 별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났다.

8월 23일 넷째 날, 우리 대천중학교에서는 개학날이기도 하였고 외국인들과 헤어지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 날 우리는 학교생각보다도 외국인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다. 그래서 서로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이것

으로 마치게 되었다.

이번 환경 심포지움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낭비했던 전기량과 수도량을 생각해 보면 참 후회가 절로 나게 되었다. 이번 체험으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환경을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특히, 물 부족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물은 꼭 한방울이라도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심포지움에는 친구의 사정으로 인해, 친구 대신 가게 되었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다. 프린트를 받아든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몰랐다. 그래도 무사히 과제를 마친 후, 옷을 싸들고 친구와 임해수련원으로 향했다.

외국인을 많이 못 보았다고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러시아 사람인 듯한 사람들이 로비에 앉아 있으니까 왠지 모를 설렘이 내 마음 속에 생겼다. 나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그러했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 나와 같았을 것이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나에겐 아주 생소한 것 이었다. 대천 촌놈이 이런 기회를 맞볼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되리요. 국제회의에서나 사용한다는 장비와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말 하며, 정말 속으로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제기차기에서 열심히 찬 것과, 노래를 열심히 불렀으나 아주 아쉬웠던 것. 이제야 털어 놓지만 변성기라 많은 고음을 소화해 내지 못한 나는 잔잔한 발라드로 주위에 이목을 끌고 싶었다. 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자의 만류로 그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 땀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다. 내게는 이제 추억으로 남아 내 머리를 채우고 있다. 만족한다.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과의 사진 촬영이다. 치카와 풀키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으로 통해 많은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영목이 형이랑 주형이 형과 많이 친해졌다.

마지막에 친구들을 보낼 때는 시원섭섭했다. 하지만 개학이라 학교를 가야 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월요일 날에 끝나는 바람에 정말 기분이 묘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항상 신경을 써주신 이상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처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쉽게 보고 참여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가계부를 모두 정리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기뻐다. ‘아 앞으로 4일간 실컷 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활동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환경문제에 민감하다는 걸 알았다.

즉, 환경문제는 지구 어디서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물의 탁도 측정 등 실험도 하고 대천해수욕장에 나가 표착물 조사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경을 조금더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곳에서 사귄 외국 친구들과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놀며 많은(?) 말도 하고 생각을 교환했다. 그 아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교류회 이후로 우리들은 좀더 친근해졌고 간단히 영어로 말을 붙이기도 했다. 춤 잘 추고 잘 웃는 ‘유다이’와 이쁜(?) ‘치카’는 아직도 얼굴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동북아 환경심포지움이라는 행사를 통해 난 참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해 보았고 외국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형들과도 좀더 친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이번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에서 ‘심포지움’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는 아주 인상깊고 재밌는 추억이다. 20~23일까지 3박 4일간의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유익하고 멋진 시간이었다. 이 심포지움행사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21일에 있었던 레크레이션과 22일에 있었던 보령의 여러 관광지시찰, 3학년 형들과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했던 배개싸움, 한화콘도 뷔페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등 셀 수 없이 많다.

레크레이션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던 시간은 너무도 즐거웠다. 그리고 여러 관광거리를 둘러본 것, 예전에 한번씩은 다 가 봤었지만 다시 봐도 인상깊었다. 특히 냉풍욕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원하다 못해 추위를 느낄정도였다.

한화콘도 뷔페에서 먹었던 만찬도 너무 맛있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았다. 또 그날 저녁, 우리 2학년과 3학년 형들, 외국인 학생 등 여럿이 모여 배개싸움을 했던 것도 참으로 재밌는 기억이었다.

이번 환경심포지움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재 환경문제 등의 실태나 환경가계부로서 알 수 있었던 우리집의 전기, 가스, 물 사용량, 물 농도 실험은 참으로 신기하였고, 흥미 있었다.

앞으로 내게 이런 기회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꼭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번 행사로 인해 다른 나라와 환경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으로 즐거웠고, 유익했고, 내 기억속에 남을 추억을 갖게 되어서 좋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2004년 8월 20일~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 임해수련원에 한 자리에 모였다. 행사의 이름은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 한국 학생 22명(충청남도 20명, 강원도 2명), 일본 학생 9

명(니가타현 1명, 도야마현 7명, 이시카와현 1명), 러시아 학생 2명(연해주 2명), 중국 학생 7명(랴오닝성 3명, 장쑤성 2명, 산둥성 2명) 총 40명의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 환경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나누었고 환경 보전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서로 삶을 사는 데 땀 레야 땀 수 없는 4개국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지 아주 빠르게 친숙해졌다.

특히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문화도 비슷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진출하여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에는 한류가 불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일본 아이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 중간 아는 단어는 일본어로 말하면서 한국 학생들은 일본 음악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본 학생들은 보아, 배용준, 겨울연가(휴우 소나타)등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이번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에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간의 거리감을 털어버리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 점이었다. 3박 4일의 일정이 너무나 짧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교하여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다른 나라를 거울삼아 고칠 수 있었다.

3학년인 나는 앞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에 참가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참여한 2학년들은 내년에 다시 참가해서 다른 친구들과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았으면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4개국은 물론 더욱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들도 열었으면 좋겠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이번 여름방학 마지막에 “동북아시아 심포지움”이라는 정말 뜻깊고 좋은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뻐다. 내 친구인 권현이도 참석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권현이는 교회 일로 같이 못 가서, 조금 안타까웠다. 이 심포지움은 내 삶에서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참가한 것이 정말 기쁘다. 심포지움에 참가함으로써 추억이 된 것은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로 가장 많이 내 사고에 영향을 끼친 사건. 일본 학생과의 만남이다. 원래 나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 일본사람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학생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인상이 많이 없어졌다. 특히 일본의 춤을 춘 3학년형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착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일본의 여학생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싶다. 우리가 बे개 싸움을 할 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데리고 있었던 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는 단지 재미있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베개싸움이였다. 불을 끄고 했는데 그나마 TV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였다. 내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언뜻 보기에는 성호형이었던 것 같다. 다리 쪽을 두 세대 쫓더니 주변에서 4~5명의 형들이 몰려와서 베개로 집중공격했다.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더구나 키도 작아서 위로 쳐다봐야 얼굴이 보이니까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맞기만 엄청 맞았다. 이 일로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싸움을 할 때는 주변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어쨌든 이 심포지움에서 한 활동이나 생활했던 것은 도움도 많이 되었고 재미있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8월 20일 저녁... 밥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 임해수련원으로 출발하여 잠시 후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여 임해수련원의 로비에 들어갔을 때는 3학년 형들과 2학년 아이들이 몇몇 있었고 그 옆으로 러시아에서 온 듯한 외국인들이 있었다.

외국인과 같이 계시던 한국의 어떤 분이 와서 얘기 좀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 하셨는데 외국인에 익숙지 않던 우리는 선불리 나서지를 못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방을 가르쳐 주셔서 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자유시간이라고 하셔서 우리 2학년 아이들은 해수욕장에 가서 무려 2시간 이상 놀다가 숙소로 돌아 왔다. 숙소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강원도에서 왔다는 학생 2명이 있었다. 우리 들은 그 둘과 금방 친하게 되었고 서로 사소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그날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임해수련원에서의 첫째 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둘째 날이 왔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8시에 로비로 내려와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일정안내를 포함한 개회인사, 기조강연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각 나라별로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학생들도 있었기에 동시 통역장비를 사용하여 발표를 들었는데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라 신기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행사에 참여 하게 된 것에 큰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각 나라별로 발표가 끝나고 몇 가지를 더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후에 또 집회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준비한 pH와 COD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도구들이 신기하였고 재미있었기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이었는데 그곳에서 모래들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고 종류별로 출처 등을 생각해 보았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사람들이 피서 후 남기고 간 것들 이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 후 저녁식사를 먹은 후에 집회장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였는데 이때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가장 친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친구와 형들이 노래도 부르고 각 나라에서 대표가 나와 각 나라의 노래를 불렀는데 익

숙지 않은 모습이었어서 웃음이 나왔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나고 잠시 동안 준비된 다과를 먹고 둘째 날의 일정이 끝났다. 친구들과 잠시 해변에 나갔다 왔는데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아침식사를 하고 집회장 모여 일본 측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수질환경’이라는 강의를 듣고 잠시 후에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환경가계부’를 설명한 뒤에 환경 심포지움 선언문의 채택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고 보령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야간의 설명을 듣고 잠시 시찰을 한 뒤 냉풍욕장에 갔고 그 뒤에 벼루 전시장에 가서 벼루를 보았고 다음으로 한화콘도에 갔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화콘도의 오락실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잠시 뒤 만찬장에 모여서 저녁을 먹은 뒤 숙소로 돌아와 기념으로 형들과 베게싸움을 하다가 다른 형들도 와서 외국인들과도 같이 베게싸움을 하였다. 난 러시아학생의 베게에 조금 많이 구타당했는데 여자 힘이라기에는 조금 켜다. 그렇게 셋째 날이 끝났다.

마지막 날 새벽에 러시아 일행은 떠났고 아침 일찍 중국과 일본 학생들로 떠났다. 비록 3박 4일 이라는 짧은 시간이이었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한국 충청남도 참가자

학교에서 동북아시아 4개국 심포지움이 환경을 주제로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참가를 희망해서 참가하게 되었다. 방학 전부터 8월 20일까지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한달도 되지 않는 시간이 나는 길게만 느껴졌다. 긴 시간도 지나고 드디어 다른 나라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다.

8월 20일 첫 날, 러시아 친구들 2명만 보고, 일정이 없는 날이어서 친구들과 TV도 보고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놀았다.

8월 21일 둘째 날, 아침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러 가는데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 일본 친구들이었다. 그들을 처음 보니 어색했지만 남은 2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아침을 먹고 개회사 뒤 각국의 조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뒤 탁도 실험을 하였다. 탁도 라는 말을 한번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 탁도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COD 와 ph 수치를 조사하였다. 엄청 복잡한 조사인 줄 알았는데 시약에 조사를 원하는 액체를 넣고 색깔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대천 해수욕장으로 표착물 조사를 하러 갔다. 쉽게 말해 쓰레기를 줍는 거였는데 아침에 청소를 해서 쓰레기는 보이질 않았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고 또한 날씨가 워낙 더워서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 표착물 조사 후 돌아와 저녁을 먹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홀라후프도 돌리고 판 뒤집기도 하고 음식도 먹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네 나라는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날 밤은 한국이 축구를 하는 날이어서

더 좋았다.

8월 22일 셋째 날, 일본인 교수 2명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나한테는 이 강의를 우리의 모든 일정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강의를 수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것으로 나는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 다음 냉풍욕장과 석탄박물관으로 향했다. 대천에 있는 나조차도 한번도 가지 못한 곳이기였기에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많은 구경을 하고 한화콘도로 가서 만찬을 갖고 사진도 찍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다. 3박 4일간 여러 친구들과 지냈는데 대화를 하고 싶어도 다가가질 못해서 아쉬웠고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나는 아주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환경은 우리가 준만큼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을..

○한국 강원도 참가자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이왕 갈 거라면 즐겁게 가자는 마음에 일단 그 가는 곳의 주제와 어딜 가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음.. 환경 심포지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 혼자 이해하길 ‘음.. 환경에 관한 거구나!’ 말고는 알 수 없었다.

가는 날이 다가 와 형과 함께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원도에서는 형과 나 이렇게 둘만 대표(?)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놀라긴 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버스에 올라탔다. 역시 버스에서는 자는 게 최고.. 자고 일어나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한다. 도착하니..... 또 버스를 갈아타서 한 2시간 가량 더 가야 한다고 한다. 보령... 생각해보니 서해안쪽 태안 밑에 있는 곳이다.

터미널에 내려 다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그 곳은.. 임해 수련원.. 춘천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해 임해수련원에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장장 5시간을 온 셈이다.

배정된 방을 찾아 들어가 보니 방에는 6~7개정도 되는 룸 멤버들의 가방뿐 아무도 없었다. 형과 나는 올림픽이 한창이라 TV를 보고 있는데 여러 애들이 들어온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알게 되고 그리고 하루 밤을 지나고 보니 진짜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뭔가 했더니 TV에서 보면 회사 같은 회의와 유사했다.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었는데, 약간 졸았지만 유익한 면도 많았다.

자연 환경 실태에 대해 조금 더 알 것 같았고 실제로 대천해수욕장 바닷가에 나가서 해변 표착물들을 줍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해변쓰레기가 나오는지 조사도 하였다. 청소가 이미 되어 있어서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담아 놓은 쓰레기 봉지를 보니 꽤 많았다.

그리고 해변쓰레기가 바다를 통해 다른 나라 해변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았다. ‘나 하나쯤이야 뭐?’ 하는 생각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혼자 다짐도 하였다.

처음에는 오기 싫고 뭔지도 몰랐지만 와서 친구도 사귀고 외국인과도 얘기하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또 특별한 습관(환경을 위한)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2박3일 동안 즐겁고 유익한 환경 심포지움이였다.

○중국 장쑤성(江蘇省) 참가자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과 러시아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가 수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상황에 대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심포지움 기간중, 우리들은 수질간이측정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전문가에 의한 수환경보호에 관한 강연도 있었으며 야외활동에도 직접 참가하여 수자원보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기간이었지만 많은 지식을 얻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수환경보호에 관한 지식뿐만아니라 수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한층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환경보호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제 고향은 장쑤성 치동시(啓東市)입니다. 치동시는 장강(長江)의 제일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동북쪽은 광대한 황해(黃海)에 접해 있으며 남쪽에 장강이 있습니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어 그 형태는 반도와 비슷합니다.

치동시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치동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치동시 시민은 물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강 주변에서 생활한 저는 미래의 수환경을 지켜나가는 청소년의 한사람으로서, 또 동북아시아 청소년환경심포지움의 참가자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수환경보호 활동에 참가하여 배운 지식을 활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그 다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해변의 표착물조사를 하여 한층 더 환경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수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고 수자원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희망이 넘치는 녹색의 세기입니다. 환경보호는 전인류의 공동사업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힘을 다하여 협력한다면 반드시 깨끗한 물과 하늘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참가자

저는 금년 여름방학중에 중국 산둥성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북아시아 청소년환경심포지움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과 러시아 4개국의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보전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배울수 있었고 또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도 높

아졌으며 또한 우정도 깊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과 석탄박물관 견학을 하고 교류회도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소중히 하고 생명의 자원을 지킨다”라는 공동의식이 생겼습니다.

제 고향은 산둥성의 옌타이시(煙台市)입니다. 옌타이시는 깨끗한 연해(沿海)도시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바닷물이 점점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업·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연안해역과 해양의 부영양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또한 연해지역의 개발과 해수를 이용한 양식업의 확대가 해양생태환경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저는 2003년 「동해·황해연안 해변의 표착물조사」에 참가했습니다. 이 조사활동은 대단히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전부 198명이 참가하여 8종류의 표착물을 663개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과 발포스티로폼류 및 유리·도자기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해양은 우리생활을 지탱해 줍니다. 미래를 짐어질 청소년에 있어서 해양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우리들은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환경보호 의식을 같이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환경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보면 즉시 지적하여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단기간이었으나 전 참가자에 있어서 수확이 큰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경험은 앞으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국의 청소년이 함께 활동할 수는 없지만 공통 인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참가자

단기간이었지만 2일간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날 오후에 수질간이측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첫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COD와 PH등 환경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만 일본 연구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설명을 받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중에서도 학교 환경보전에 관한 수업중에 이러한 실험을 체험할 기회가 적고 인터넷에서도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습은 더욱 귀중했습니다. 또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청소활동도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이 깨끗해서 쓰레기가 그다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 말씀대로 해양은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환경은 전 인류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 해변에서 청소한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전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두번째날, 저희들은 수자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강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황하의 단류 및 수자원 부족 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자세히 분석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작지 삼림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황하에 샤우랑디(小浪底)댐을 개수(改修)하여 남쪽에 있는 강물(특히 장강) 북쪽으로 끌어들여 북쪽에 부족한 일부 지역의 수자원현상을 완화시켰습니다. 제 고향 지난시(濟南市)는 정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하수위를 29.42m까지 달성시켜 예전과 같은 암석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 나오는 아름다운 경치가 되었습니다.

눈깜박할 사이의 이틀간이었습니다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청소년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이틀이었습니다. 이틀동안 신세 많이졌습니다. 이 심포지움 주체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본 니가타(新潟県) 참가자

먼저 이 심포지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활동에 대한 발표는 전혀 진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날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어서 아마도 용기가 생겨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틀려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거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이번에 확실히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또 발표원고 작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다시한번 훑어볼 수 있었고 저 자신 또한 정말 훌륭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발표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청소년의 역할이라고 느꼈습니다. 좁은 시야로 생각하면 일방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새로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수도물을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해 둔다」는 것은 물 낭비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물 낭비를 위해서는 「극히 작은 일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외활동인 표착물조사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착물조사를 몰랐으며 한 적도 없었으나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일본 바다는 더럽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 돌아가서 청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류회에서 저는 「일본인은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일본학생, 아무나 나오세요」라고 들었을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좀처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학생들은 곧장 나가서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아마 「누가 뭐라

고 할지도 몰라」라는.. 일본 특유의 답답함을 전혀 느낄수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온 저와 또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일본인을 「마음이 좁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소감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 조금은 성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장」과 함께 지금까지 다른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일을 할때 보통같으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든지, 귀찮아하든지, 포기했었던 일을 지금은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대화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움의 본래 목적과 더불어 이것 또한 큰 수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배운 경험과 소감입니다.

○일본 도야마현(富山県) 참가자

8월 21,22일 한국에서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러시아의 4개국 청소년들에 의한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 2004」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도야마현 대표로 참가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이 짝 찼습니다.

발표활동중에서 제가 특히 인상에 남아있는 것은 러시아의 「연해지방의 연꽃 보전」에 대한 발표입니다. 연꽃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만약 환경오염이 발생되었을때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연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또 미래를 위해 인공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수초(말), 도미요(청류에 사는 가시가 있는 작은 물고기), 반디불이 비오톱에서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에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환경을 보전해 나갈 마음을 새롭게 다질수 있었습니다.

또 교류회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와 춤을 즐기면서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특히 옆자리의 한국 참가자와 서로 마음이 통해 앞으로 편지연락을 통해 교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학교생활에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 도야마현(富山県) 참가자

환경심포지움에 참가해서, 일본이나 각국의 참가자분들, 가와가미조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호기심을 넘어서 점점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생물보호라도 ph 이나 COD 등을 조사하고, 그대로 「환경」을 유

지하려고 하는 것이나, 풍부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새로이 만드는 것 등, 같은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사고방식은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놀란 것은 내용이나 각각의 생각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한다」나 「모두가 환경은 소중하다는 의식을 높인다」 등으로, 누구나가 한번쯤은 생각한 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천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지금 「앞으로 화학약품, 자동차, 전기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자」라니,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발표내용에 있었던 「물질약」이나 「수질환경보전 및 대책」 등에서 발표됐던 것의 일부라면, 무리없이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한 사람만으로는 무리라도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인식을 전파해 나간다면, 전원이 아니라도 몇 명은 실행해 줄 것입니다. 그 몇 명이 또한 몇 명에게 전파해 주면, 이윽고 꽤 많은 수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지금보다 조금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호소, 설득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심포지움에서 배운 것은 환경뿐만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각각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사물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일의 중요성이나, 무한하게 펼쳐지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심포지움에 참가할 수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조금 넓힐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험을 살려, 미력하지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県) 참가자

올 여름, 저는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심포지움에 참가했습니다.

활동발표에서는 참가자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활동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도야마현의 나카다중학교에서는 지역의 협력 등을 얻어 교정에 학교비오톱 「고향의 샘물」이나 「반디불이 수로」를 만들어, 거기서 그들 생물을 인공적으로 생육하는 데 성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전체에서 보호활동을 하고, 항상 그런 가까운 곳에서 환경과 마주 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야외활동 때에는 가까운 바다에 가서 표착물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바다로 많은 사람이 와서 쓰레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 깨끗해, 일본의 해안은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모두 자신의 것을 소중히 합시다. 바다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소중히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기도 하고, 그 모두의 바다를 각자가 소중히 하면 더럽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자원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러시아는 풍요로운 편이지만,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물부족현상이 심각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수라 해서 수입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 등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이 있어, 일본처럼 많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물은 순환하고 있어 어딘가 일부분이라도 오염되어 버리면, 전체의 물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저는 이 심포지움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의 하나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있습니다.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위 4번째 나라에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식물을 기르거나, 가정에서는 전기절약에 신경 쓰고,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차사용을 피하는 등, 자신들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높여 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지방(沿海地方) 참가자

현재, 인류에 있어 환경문제 및 수질오염문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은 협력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전에 관심이나 흥미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심포지움에 4개국(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이 참가해, 지구전체나 지역의 주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흥미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환경활동이나 환경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심포지움에 참가해, 해외에서 자신과 같이 환경에 관한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가능한 늘려 장래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이를 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지방(沿海地方) 참가자

올해 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수질오염을 주제로 한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심포지움」에 참가했습니다. 심포지움에는 4개국(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심포지움은 한국 충청남도 보령시의 수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련원은 학생들이 여름 방학 등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심포지움의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기조강연, 실습, 공동야외환경보전활동 등 매우 재미나고, 게다가 놀이나 휴식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분과 함께 보령시를 거닐며 구경하며 한국의 문화, 전통, 습관 등에 대해서 많

은 질문을 했습니다. 체재 중, 냉풍육장(버섯재배장), 석탄박물관, 쓰레기매립장으로 시찰을 갔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의 최종처리나 최종처리장의 이용(최종처리장에 스포츠 시설, 공원, 어린이용 시설 등을 건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탄박물관에서 한국의 석탄산업의 발전을 보고, 석탄의 채취기술이나 사용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섯재배장에서 버섯주스를 시음하고, 버섯재배방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움의 일정은 매우 재미났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가능한 늘려, 계속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포지움의 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외국의 많은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포지움 개최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